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진미경*, 오재우**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Mi-Kyung Jeon*, Jae-Woo Oh**

Dept. of Nursing, Munkyeo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소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질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상관성 조사연구로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4학년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부터 10월 15일까지였다. 자료는 SPS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소진과 정적 상관관계를,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소진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소진에는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영향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무례함을 감소하기 위한 병원과 학생, 임상실습지도자 및 병원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임상실습, 간호대학생, 소진,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nursing students and was attemp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burnout which they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qualitative clinical practice. This study, as a correlation survey study, was conducted for 210 senior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and who were in a nursing department, and data was collected from Oct 1, 2016 to Oct 15, 2016. The data was analyzed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using SPSS Program 20.0. It was revealed that the burnout of nursing students was affected by rudeness,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porting system which is connected to hospitals, students, and clinical practice leaders and hospital administrators and improve the system.

Key Words :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Burnout, Rudeness,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Received 30 November 2016, Revised 30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Oh Jae Woo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Email: love_token@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로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1],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서 만나게 되는 간호사의 무례한 행동이나 태도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향후 자신이 되어야 하는 간호사를 바람직한 모델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2].

무례함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고 해를 입히려는 의도도 분명하지 않으나 사회적 기준에서 비추어 비폭력적이며 낮은 공격성을 가지는 행동으로, 모호한 의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3]. 그러나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2], 또한 무례함은 실습 중에 종종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나, 학점과 연결되어 있고 졸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임상실습에서 견뎌야 하는 관문이며[4], 미래에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간호대학생으로서 견뎌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었다[5]. 이렇듯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에게 정서적인 소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간호사로서의 역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6].

간호대학생은 학문의 특성 상 전공교과목의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심화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진의 정도가 높아지고, 소진은 실습, 학업 성취, 교육과정, 지지와 관련되어 있다[8].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중국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학업과 관련된 요구들도 인하여 피로해지고 학업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어 소진이 높아지고 효능감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대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소진은 전공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런 소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 적응 및 긍정적인 변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직 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공만족도란 자아 성취와 배움에 대한 기대, 향후 특정한 직업세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졸업 후 진로 태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자신

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전문지식과 임상실습, 더불어 간호학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이론 교육과정 및 실습에 있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간호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9, 28].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및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절하고 그것에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서적인 요인이다[10].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선택하고 수행하는 바탕으로[11], 임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러 학문 분야에도 강조되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다[1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무례함에 대한 연구는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5] 및 무례함과 소진의 관계 [13], 간호대학생의 대처에 따른 소진의 정도[8]가 있으나 무례함이 아닌 임상실습 스트레스나 폭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부터 경험한 무례함을 파악하고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질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시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4학년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유의수준 0.05, power 0.95를 기준으로 최소 표본수가 166명인 것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표본수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 210명 중 미비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1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무례함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Anthony 등[5]이 개발한 UBCNE를 Hong[14]이 번역 및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자주' 4점까지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한 무례함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1$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미국 Illino대학에서 개발한 학과 평가 조사지를 Kim과 Ha[1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36문항의 학과 만족도 도구를 Park[17]이 전공만족관련 6문항만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8$ 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1982년 Sherer 개발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Jung[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4$ 이었다.

2.3.4 소진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소진은 Schaufeli 등[15]이 일반인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BI-GS를 Hong[14]이 번역 및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7$ 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및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윤리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개인 비밀 보장 및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상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IBM, Americ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소진,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한 무례함,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0~22세 121명(63.4%), 23~25세 63명(33.0%), 성별은 남자 28명(14.7%), 여자 163명(85.3%)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무교가 136명(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주변권유 71명(37.2%), 적성과 흥미 61명(31.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1)

Characteristics	Division	No (%)
Age(yr)	20~22	121(63.4)
	23~25	63(33.0)
	≥26	7(3.7)
Gender	Male	28(14.7)
	Female	163(85.3)
Religion	None	136(71.2)
	Christian	26(13.6)
	Catholic	7(3.7)
	Buddhist	22(11.5)
Motive	Close to Invite	71(37.2)
	Aptitudes and interest	61(31.9)
	Career	49(25.7)
	None	10(5.2)

3.2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소진 정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평균 1.88점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9점,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3.71점, 소진은 5점 만점에 2.7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N=191)

Variables	Domain	Mean(SD)	Range
Rudeness		1.88(0.65)	1-5
Major Satisfaction		3.69(0.63)	1-5
Self-Efficacy		3.71(0.56)	1-5
Burnout		2.74(0.56)	1-5
	Exhaustion	3.32(0.78)	1-5
	apathy	2.41(0.80)	1-5
	Inability	2.48(0.64)	1-5

3.3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소진간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소진간의 상관관계로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소진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소진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Rationality, Major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N=191)

Variables	Rudeness r(p)	Major Satisfaction r(p)	Self-Efficacy r(p)	Burnout r(p)
Rudeness	1			
Major Satisfaction	-.142	1		
Self-Efficacy	-.180*	.672**	1	
Burnout	.238**	-.715**	-.600**	1

*p<.05 **p<.01

3.4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소진과 상관관계를 보인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무례함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무례함 모두 소진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1%(F=80.58, p<.001)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좋을수록 무례함을 경험하지 않을수록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mpact of Rationality,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Burnout (N=191)

Variables	β	t	p
Major Satisfaction	-.576	-8.17	< .001
Self-Efficacy	-.171	-2.41	< .001
Rudeness	.115	2.10	< .001

Adj. R²=.515, F=60.56,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소진을 파악하고 각 변수와의 관계,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첫째,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평균 1.88점이었다. 이는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간호사의 무례한 행동으로는 무관심하고 싫어하거나 귀찮은 표정, 무시하거나 명령하는 말투, 평가하고 비판하는 억양 등으로 나타난 결과는 Kim 외[19]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으로서 간호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며[29], 결국 이러한 간호사들의 행동을 인지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사가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배제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간호사의 의도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 임상실습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더 나아가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 교육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생각된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e[20]의 연구에서 3.77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향후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준비를 위한 과정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즉 직무자체에서 흡족하는 것으로, Barron, West와Reeves[21]는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추후 자신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직무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되며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형성과 직업의 유지를 방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의 직무인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여 간호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공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hang[22]의 연구, Kim과 Kim[23], Hwan[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향이 높고[22],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이며, 또한 임상술기를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진은 5점 만점에 2.7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ong[2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전공지식과 더불어 전공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교육과정으로 임상실습에서 학교생활, 교우관계, 가정 환경 등의 요인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피로감을 느끼고, 학업 몰입도가 감소되며, 이는 향후 직업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졸업 후 직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므로 이직 의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26],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소진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소진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정서적 소진으로 나타나고[13],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무례함을 많이 느낄수록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 원인인 무례함은 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5], Kim 외[27]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무례함은 간호대학생에게 소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진로 선택에 대한 후회, 졸업 후 이직 의도에게 영향을 주므로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무례함 모두 소진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설명력은 51.1%($F=80.58, p<.00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이 무례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자신이 향후 임상에서 전문적인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1], 임상실습 시 자신을 지도해주는 간호사의 비폭력적이며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무관심, 무시하는 행동, 불쾌하고, 귀찮아하는 표정, 비꼬는 행동 등의 무례한 행동에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가 증가되며, 전공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 자기효능감을 저하시켜 정서적으로 소진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 전환 또는 긍정적인 사회화를 저해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호사로서의 직무에도 회의감을 주게되어

이직 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실습 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이 느끼게 되는 무례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임상실습에서 무례함을 경험할수록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며, 소진이 높아지므로 임상실습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수, 학생과 병원관리자,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유기적인 협조와 보고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소통기술 및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은 무례함을 경험할수록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은 저하되며, 소진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무례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간파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보고체계 확립 및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대상자 선정 시 일개 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지역과 다양한 상황을 가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와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례함은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한 무례함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Brammer, J. D., "RN as gatekeeper :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RN buddy role in clinical practiceexperi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6, No. 6, pp. 389-396, 2006.
- [2]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98-106, 2005.
- [3] Andersson, L. M., Pearson, C. M. "Tit for that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4, No. 3, pp. 452-471, 1999.
- [4] Curtis, J., Bowen, I., Reid, A. You have no credibil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horizontal viole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7, No. 3, pp. 156-163, 2007.
- [5] Anthony, M., Yastik, J., "Student nurses' experiences with incivility clinical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50, No. 3, pp. 140-144, 2011.
- [6] Palaz, S., "Turkish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bullying behavior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Vol. 3, No. 1, pp. 23-30, 2013.
- [7] Hu, Q., Schaufeli, W. B., "The factorial validity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in China." *Psychological Reports*, Vol. 105, No. 2, pp. 394-408, 2009.
- [8] Gibbons, C., "Stress, coping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7, No. 10, pp. 1299-1309, 2010.
- [9] D. J. Oh, C. J. Choi, B. E. Kwon,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1, No. 1, pp. 62-72, 2005.
- [10] Bandura, A.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2, No. 2, pp. 191-215, 1977.
- [11] K. H. Park,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Failure Tolerance of Life long Learner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Korea Knowledge Management Society*. Vol. 14, pp. 335-352, 2005.
- [12] K. H. Kim, G. D.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229-236, 2007.
- [13] Babenko-Mould, Y., Laschinger, H. K., "Effects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on nursing student burnout." *Internatoi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11, No. 1, pp. 145-154, 2014.
- [14] Y. K. Hong,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and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6.
- [15]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Bakker, A. 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3, No. 5, pp. 229-236, 2002.
- [16]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7-20, 2000.
- [17] S. M. Park, "The Effects of Major-related Job-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2011.
- [18] A. S. Jung,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7.
- [19] S. H. Kim, H. J. Cho, J. H. Dong, J. M. An, B. R. Yun, G. Y. Lee, J. Y. Lee, H. M. Lee, H. I. Jang, "Verbal Abuse, Verbal Abuse Response, and Stress on Verbal Abuse of Nursing Student in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10, 2011.
- [20] S. R. L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A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1.
- [21]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icy*, Vol. 12, pp. 46-51, 2007.
- [22]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05-213, 2006.
- [23] N. H. Kim, K. W. Kim,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4, pp. 41-51, 2011.
- [24] H. Y. Hwa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Attitude of Patient Safety, and Safety Care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5.
- [25] C. M.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using MBI-SS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353-362, 2015.
- [26] Rudman, A., Gustavsson, J. P., "Burnout dursing nursing educati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oi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9, No. 8, pp. 988-1001, 2012.
- [27] S. Y. Kim, J. K. Kim, K. O. Park, "Path Analysis for Workplace Incivility, Empowerment,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Acad Nurs Adm*, Vol. 19, No. 5, pp. 555-564, 2013.
- [28] K. A. Chung, J. H.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5, 143-155, 2015
- [29]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전 미 경(Jeon, Mi Kyung)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1년 4월 ~ 현재 : 문경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신간호, 정신간호
- E-Mail : jeonmk4311@nate.com

오 재 우(Oh, Jae Woo)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아동간호, 스트레스
- E-Mail : love_token@hanmail.net